

〈쇼동화역디설〉의 전쟁 서술 방식과 문학적 의미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윤보운*

<차례>

1. 머리말
2. 〈쇼동화역디설〉에 서술된 임진왜란
3.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4. 역사서사의 문예적 효용과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쇼동화역디설〉은 조선 역대 임금의 행적을 바탕으로 명신과 저명인물의 내력을 기술한 역사서사이다. 이 작품의 권지삼에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1589년에 임진왜란을 처음 언급한 이후 1592년 전쟁의 발발과 당시 조선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1599년 명의 원조 규모를 정리한 것으로 임진왜란 관련 서술을 마무리한다. 역사서사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충실한 면모를 보이지만 곳곳에 문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작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임진왜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쟁이 필연적으로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상황을 나열하여 전쟁서사의 도입부를 구성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건을 선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조선의 위태로운 분위기를 고조하고 임진왜란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둘째, 임진왜란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 소개하면서도 조헌과 이순신의 일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전쟁의 중심인물로 부각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임진왜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문학적 감동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역사서사를 표방하되 선조에 대한 묘사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그가 겪은 시련을 강조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은 다른 인물에게 전가하거나 해당 서술을 제외하기도 하였다.

<소동화역디설>은 조선의 역사를 기술하는 한 과정으로 임진왜란을 다루면서 사실을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고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독자를 배려하였다.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역사서사의 당연한 특성일 것이나 여기에 작자의식을 반영하여 문학적 요소를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특정 인물의 일대기를 확장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예적 서술 방식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 것은 물론 허구가 아닌 역사를 즐길 수 있다는 만족감도 부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소동화역디설(소중화역대설), 역사서사, 조선, 임진왜란, 조현, 이순신, 선조

1. 머리말

조선의 지배층이 중세 질서의 수호를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던 당시 세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삼국 중 일본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무기를 최신화하고 전국을 통일하는 등¹⁾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반해, 조선은 국제적으로는 명에 예속되어 있었고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당색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어 백성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이러던 차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조선 지배층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피지배층의 원망이 극에 달했다. 임금과 대신들이 왕도를 버리고 피란하여 명의 원조를 기다리는 사이 조선의 백성들은 의병으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고 이때의 경험은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임란은 문학사에 있어서도 뚜렷한 동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기점으로 소설을 비롯한 서사문학이 폭발적으로 창작·유통되고 서

1) 이만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97~98쪽.

민이 문학 담당층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임진왜란은 그 동안 겪어 보지 못한 끔찍한 시련이었으므로 이를 기록하고 느낀 바를 전하기 위한 작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실기나 일기류는 전란의 참상을 묘사하고 개탄하는 마음을 나타냈으며 소설이나 설화는 이러한 소재를 활용하고 극적으로 변모시켜 훌륭한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다.²⁾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에 활약했던 인물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에서 조금은 어긋나더라도 용인되었다.³⁾ 단지 이를 향유하는 독자에게 흥미로 작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문학적으로 향유하는 흐름 속에서 역사서사 또한 필사되어 읽히기도 하였다. 이들 중 전쟁에 대한 내용은 독자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다른 부분에 비해 확대 서술되기도 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예미가 발현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쇼동화역디설>이라는 작품은 조선왕조의 내력을 매우 간략한 역사서처럼 기록한 것인데, ‘성소저’라는 여성 독자에 의해 필사되었다.⁴⁾ 역사서사도 소설을 향유하듯이 책을 빌리고 이를 소장하여 더 읽고 싶은 마음에 필사하기도 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읽을거리로 흥행한 역사서사에서 조선의 사회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임진왜란 이야기는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서사 속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것이 독서물로 인기를 얻기 위해 서술 방식에 어떠한 문학적 변화를 시도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소설이나 설화 등에서 임진왜란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을 논의한 연구는 다수이다.⁵⁾ 그러나 임진왜란과 역사서사인 <쇼동화역디설>

2) 조동일, 『(제4판)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9, 9~12쪽.

3)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179쪽.

4) 윤보윤, 「<쇼동화역디설>에 나타난 역사와 문학의 접점 연구」,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255~258쪽.

5) 장경남, 임란 실기문학 <임진록> 연구, 『승실어문』 10, 승실어문학회, 1993, 269~289쪽; 임철호, 「<임진록>의 전승과 구비설화」,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을 함께 다룬 적은 없고 이 작품의 개별 연구도 많지 않다.⁶⁾ 처음 <쇼동화역디설>을 소개한 이후, 특정 인물의 일화를 통해 전기(傳記)서사와 이 작품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이 작품에 두드러지게 형상화된 인물을 바탕으로 문학적 가치를 논한 정도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쇼동화역디설>의 문예적 면모가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2. <쇼동화역디설>에 서술된 임진왜란

<쇼동화역디설>은 6권 4책으로 구성된 국문 필사본으로 조선왕조의 내력을 밝히고 당대의 명신과 저명인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 작품이다. 창작 연대와 작자는 알 수 없으나 1915년과 1916년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추측된다.⁷⁾ 제2책에 실린 <쇼동화역디설> 권지삼은 총

1998, 211~244쪽;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유병환, <임진록>에 나타난 사명당의 신통법력과 그 의미, 『한어문교육』 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0, 244~281쪽; 최문정, 한일 역사군담소설에 나타난 승자·통치자像-〈태평기〉와 <임진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17,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1, 281~303쪽; 설성경·최문정·권혁래, 임진왜란 관련 한일 역사서사문학의 성격-〈임진록>과 <태합기>, <조선정벌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2, 143~184쪽; 강현모,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전승의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2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93~115쪽; 권혁래, 「16·17세기 동아시아적 경험과 기억으로서의 일본인 형상-조선후기 역사소설을 대상으로」,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31~61쪽; 장경남, 특집: 근대 초 고소설의 전변과 담론화 양상: 근대 초기 <임진록>의 전변 양상,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41~75쪽.

6) 윤보윤, 「<쇼동화역디설>에 나타난 역사와 문학의 접점 연구」,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253~292쪽; 윤보윤, 전기서사와 역사서사의 비교 연구-〈박태보일화〉와 <쇼동화역디설>의 ‘박태보일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81, 어문연구학회, 2014, 71~95쪽; 윤보윤, 「<쇼동화역디설>의 송시열 형상화 방식 연구」, 『인문학연구』 11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215~252쪽.

7) 윤보윤(2013), 앞의 논문, 255~258쪽.

71장 141면인데 여기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9면부터 117면 사이에 실려 있다. 1584년(선조 17)부터 1615년(광해 7)까지의 내용이 소개되어 31년의 역사가 권지삼에서 다루어지는데 7년간의 전쟁 이야기가 109면을 차지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임진왜란을 얼마나 상세히 기록하고자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면부터 강서에 대한 서술이 시작되어 10면에 ‘임진왜란’이라는 단어가 처음 보이고, 116~117면은 전쟁이 종료된 후 그 동안 명이 조선에 보냈던 원군의 규모를 소개한다. 표를 통해 <쇼동화역디설>에서 임진왜란의 주요 사건에 대해 서술한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인물	내용
1	1589년	강서	천상을 보고 임진왜란을 알다.
2	1589년	조현	상소를 올려 정배되었는데 조정이 일본 통신사를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상소하다.
3	1590년	변협	갑신(1584년)에 천문을 읽어 십 년 안에 변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다.
4	1590년 3월	황윤길	통신사 황윤길, 김성일, 허성을 일본으로 보내다.
5	1591년 3월	황윤길 김성일	통신사와 왜사신 평조신이 돌아와 보고하는데 황윤길은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김성일은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하다.
6	1591년	풍신수길	왜서(倭書)에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길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을 소개하다.
7	1591년	이순신	유성룡의 청으로 정읍현감 이순신을 전리수사로 삼다.
8	1592년 4월 13일	풍신수길	여러 섬의 군사 수십만을 거느려 직접 일기도에서 기다리다가 평수가 등 36명의 장수로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배 사오만 척으로 쳐들어오다.
9	1592년 4월 15일	송상현	조복을 입고 앉아 항거하다가 죽었는데 평조신이 관에 넣어 성 밖에 묻고 표를 세워 제를 지내주다.
10	1592년 4월 17일	신립	도순변사가 되어 빈청에 나올 때 사모가 갑자기 땅에 떨어져 보는 사람들이 실색하다.
11	1592년	이일	상주에 이르니 목사는 산속에 숨고 왜적이 이미 닿아 크게 패하다.
12	1592년	신립	처음에는 조령을 지키고자 하다가 이일의 패주 소식을 듣고 담이 떨어져 탄급대 앞에 진을 쳤다가 패하여 강물에 투신하다.

13	1592년		왜군의 병력과 물자를 소개하다.
14	1592년 4월 30일	선조	용복을 입고 돈의문으로 나가 몽진을 떠나는데 비 때문에 벽제역에 머물 때 이산해와 유성룡을 부르며 처지를 한탄하다.
15	1592년 5월 1일	선조	동과역에 이르러 호위하던 하인들이 음식을 다투어 선조가 먹을 것이 없었으나 황해감사 조인득과 서흥부사 남억의 도움으로 개성에 가까스로 도착하다.
16	1592년 5월 3일		경성을 함락하기 위한 왜군의 복상로(중도, 좌도, 우도)를 소개하다.
17	1592년 5월 4일	선조	개성을 떠나다.
18	1592년 5월 7일	선조	평양에 도착하다.
19	1592년	신각	양주에서 왜적을 물리쳤으나 억울하게 죽다.
20	1592년	이순신	원균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거제 앞 바다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이어서 하동, 사천, 고성 앞 바다에서 여러 번 왜적을 격퇴하다.
21	1592년	유극량	신할이 왜적의 계략에 속아 군사가 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였는데 유극량은 이를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출전하였다가 전사하다.
22	1592년 6월	선조	왜적이 가까이 와서 거가가 의주로 출발하다.
23	1592년 6월 22일	선조	의주에 도착하다.
24	1592년		각 도에서 의병이 일어나는데 호남은 고경명·김천일, 영남은 광재우·정인홍, 호서는 조현이다.
25	1592년	광재우	무용이 있는 선비로, 왜적이 읍을 들고 가산을 훔쳐 군사를 모아 싸우니 홍의장군이라 일컬어지다.
26	1592년 7월	권을	군사를 보내어 응치에서 왜적을 물리치다.
27	1592년	광재우	현풍과 창녕 사이에서 왜적을 파하여 우도 도적의 길이 끊어지다.
28	1592년	이순신	고성 견내량에서 왜적을 격퇴하다.
29	1592년 7월 19일	조승훈	명의 원군이 평양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다.
30	1592년	휴정	승군을 모으니 천여 인이 되다.
31	1592년	김응서	왜적이 평양성을 지킬 때 계월향의 친형이라 속이고 성에 들어가 평행장의 부장을 죽이다.

32	1592년	조헌	승장 영규와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청주를 회복한 후 금산성을 공격하다가 전사하다.
33	1592년 9월	심유경	화친을 맺고자 왜진에 금표를 세우고 돌아가다.
34	1592년 12월 25일		사만 삼천여 명의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다.
35	1593년 1월	이여송	명의 원군이 평양성을 회복하다.
36	1593년	유성룡	방어사 이시언과 김경로에게 퇴로에서 왜적을 격퇴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37	1593년	권을	행주성에 목책을 세우고 항전하여 왜적을 격퇴하다.
38	1593년	선조	영유로 나오다.
39	1593년		왜적이 명과 강화하여 경성에서 물러나다.
40	1593년		산동 군량 십만 석을 조운하여 오다.
41	1593년 4월 20일	이여송	경성에 들어가다.
42	1593년 4월 25일	선조	선릉과 정릉에 변고가 있어 백관을 거느리고 망곡하다.
43	1593년		왜적이 이미 물러나 울산, 서생포부터 웅천까지 진지를 구축하여 오래 머물 계교를 쓰다.
44	1593년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하고 수만 명을 죽이다.
45	1593년 9월	이여송	본국으로 돌아가다.
46	1593년 10월 4일	선조	환도하다.
47	1593년	김덕령	용력이 나는 듯하나 겸손하여 유업에만 힘쓰다가 지방 관리로부터 천거를 받자 거병하였는데 왜적이 나는 장군이라고 일컫다.
48	1594년 5월	고양겸	왜적과 화친할 것을 전하자 선조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유성룡의 설득으로 부득이 쫓다.
49	1595년		영남 관군이 왜적을 파하다.
50	1596년	풍신수길	조선의 왕자가 사레하지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 않고 화를 내어 화친이 실패하다.
51	1596년	이순신	원군의 모함으로 백의종군을 하다.
52	1597년 1월		명나라에서 다시 원군을 보내다.

53	1597년 4월	원균	이순신의 규약을 모두 변경시키고 매일 술에 취하여 군령이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왜적의 술수를 당하지 못하고 대패하여 전사하다.
54	1597년	곽준	황석산성이 함락될 때 두 아들을 안고 함께 죽다.
55	1597년	양원	남원성이 함락되어 원접사 정기원, 원병사 이복남, 방어사 오응정, 조방장 김경로, 별장 신호, 부사 임현, 판관 이덕희, 구례현감 이원준 등이 모두 죽고 총병 양원만 달아나다.
56	1597년	이순신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왜적을 격파하여 수전 잘 하기로 이름난 마다시라는 왜장을 죽이다.
57	1597년	양호	총병 해생을 보내 직산에서 왜병을 크게 궤하다.
58	1597년 10월	선조	홍인문에서 묘사주를 맞아 분향례를 행하다.
59	1597년		정유재란에 동원된 왜병의 규모를 소개하다.
60	1597년	풍신수길	병사 한 명당 조선 군졸의 코를 한 되씩 보내라고 명령하다.
61	1598년	선조	최천건, 이원익, 이항복, 이정구 등을 차례로 명에 보내어 참소당한 양호를 변무하다.
62	1598년	진린	수군 오백 척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가다.
63	1598년	이순신	진린의 성품을 파악하여 주찬을 정히 베풀어 대접하고 왜적의 수급을 양보하자 진린이 명군의 지휘를 허락하다.
64	1598년 9월		명나라 원균이 네 길로 나누어 온 사정을 말하다.
65	1598년	이순신	소서행장이 길을 비켜달라고 뇌물을 주었으나 꾸짖다.
66	1598년	진린	뇌물을 사양하며 이순신에게 부끄럽다고 하다.
67	1598년	이순신	진린과 협공하여 소서행장과 도진의홍의 진선 수백 척을 격파하고 활을 맞아 죽음에 이르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다.
68	1598년	진린	이순신의 죽음을 예감하다.
69	1598년 7월	풍신수길	이미 죽었는데 덕천가강이 제장의 처자를 불모로 잡고 군사를 부르니 가등정정, 소서행장 등이 다 바다를 건너가다.
70	1599년 4월	형개	제장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돌아가다.
71	1599년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보낸 원병과 물자를 말하다.

[표1] <쇼둥화역덕설>에 나타난 임진왜란 서사

1번에서 7번까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이다. 전쟁을 본격적으로 기술하기 이전에 여러 인물의 선견지명이나 기이한 조짐과 조정의 대응 등이 나타난다. 1589년에 승지 강서가 졸하고 그의 일생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언급하며 ‘임진왜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 같은 해에 조헌이 통신사 파견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일과 다음해에 변협이 전쟁을 내다본 일도 이야기하여 변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다. 1590년 3월에 황윤길, 김성일, 허성을 통신사로 파견하였고 그들이 이듬해 3월에 돌아와 왜의 정세를 보고하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풍신수길의 서신을 간략히 보이고 이순신이 전라수사에 발탁된 내용도 있다.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인물 중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조헌과 이순신을 일찌감치 등장시키고 있다.

8번에서 34번까지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의 상황이다. 이 시기는 급작스러운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패하면서 선조가 몽진까지 떠나게 된다.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소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592년 4월 13일에 풍신수길의 명으로 36명의 왜장이 수만 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침략한 것이나 15일에 송상현이 의롭게 전사한 것, 17일에 신립에게 불길한 일이 있었던 것 등을 세세하게 기술한다. 이일과 신립이 연달아 패하자 4월 30일에 선조는 피란을 떠나는데 5월 1일에 개성에 도착해 7일에는 평양에 들어가고 6월 22일에 의주에 다다른 사실을 빠짐없이 소개한다. 조선왕조의 역대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역사서사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선조와 관련한 사건을 일자까지 소개하려고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 사이에 왜군의 병력과 물자를 언급하고 한양까지 진격한 북상로를 나열하는 등 임진왜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패전을 거듭하다가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거두고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등 암울했던 전쟁 이야기가 활력을 되찾는다. 승리한 장군으로 이순신, 광재

우, 권율, 김응서, 조현 등이 소개되어 있고 뛰어난 인물이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명장으로 신각과 유극량이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조현은 의병장으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지만 안타깝게 전사하는 것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7월에는 조승훈이 이끄는 명의 1차 원군이 평양성 탈환에 실패하고 9월에는 심유경이 왜와의 화친을 시도하며 12월 25일에 명의 2차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는 등 명이 조선을 돕기 위해 애쓴 사실을 부각한다.

35번에서 47번까지는 1593년의 상황이다. 이 시기는 명의 참전이 본격화되어 왜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부분을 기술하고 명의 물질적 원조를 부각하고 있다. 1월에 이여송이 평양성을 되찾고 4월 20일에 한양으로 들어왔다가 9월에 본국으로 돌아간 과정이 자세히 나열된다. 또한 명 황제가 아사하는 조선 백성을 진휼하기 위해 산동에서 군량 십만 석을 조운해 주었다는 일과 명 장수인 사대수가 죽은 어미의 젖을 빼는 아이를 거두고 군량을 나누어 백성을 구제했다는 등의 일화도 소개된다. 조선의 명장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권율이 행주성에서 대승한 일과 김덕령이 왜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일도 이야기한다. 왜적이 물러나 조선에 오래 머물 방도로 진지를 구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진주성이 함락되어 수많은 사람이 참혹하게 죽은 사건도 언급하였다. 그나마 전세가 유리해져 10월 4일에 선조가 환도한 일도 기술한다.

48번은 1594년 5월에 고양겸이 왜적과의 화친을 선조에게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 내용이 주로 기술된 것이고 49번은 1595년에 영남 관군이 왜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50번과 51번은 1596년에 풍신수길 이 조선과의 강화를 거부한 일과 이순신이 왜 첩자의 계략과 원군의 시기로 백의종군을 하게 된 일이다. 앞서 1592년과 1593년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전투 또한 잦았으므로 전쟁의 발발과 경과를 서술해야 하는 부분

이 많았으나 1594년부터는 전투가 소강상태에 이르자 이야깃거리가 줄어들어 간략하게 주요 사건을 나열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95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영남 관군이 왜적을 물리쳤다는 것과⁸⁾ 목화가 흉년이 저서 값이 폭등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작자는 임진왜란을 기술하면서 전쟁의 조짐을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589년부터 매해 빠뜨리지 않고 해마다 실재했던 사건을 다루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589년부터는 한해도 누락하지 않고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여 역사서사 편집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52번에서 60번까지는 1597년의 상황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난 때이다. 여기에서는 원균의 패배와 이순신의 승리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명의 장수인 양호가 대승을 거둔 사실을 기술한다. 1월에 명이 다시 원군을 보내어 조선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순신의 자리에 올랐던 원균이 왜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패한 사정을 밝혀 이순신이 명장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산에서의 대패에 이어 남원성까지 함락되어 조선과 명의 수많은 군사가 전사한 일도 기술해서 정유재란으로 조선이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였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이 진도 앞 바다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하고 왜장까지 죽인 일을 바로 뒤에 소개하여 이순신 덕분에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역설한다. 또한 양호가 소사평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조선과 명의 뛰어난 인물이 함께 왜적을 물리친 사실을 나란히 기술하였다. 이 시기 정유재란에 동원된 왜병의 규모를 알리고 풍신수길의 조선 군졸의 코를 병사 한 명당 한 되씩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왜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도록 한다.

8)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면 영남 관군이 왜적을 물리친 것은 1594년 12월이기도 하다.

61번에서 69번까지는 1598년의 상황이다. 여기에는 주로 진린과 이순신의 일화가 나열되며 선조가 명의 장수를 두둔하는 내용이 소개된다. 앞서 대승을 거둔 양호가 참소당하여 본국으로 송환되는데 선조는 그를 눈물로 전별하기도 하고 명 조정에 여러 대신을 보내어 변무하기까지 한다.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운 명 장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순신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서술되는데 이 또한 이순신을 단독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진린과의 이야기를 함께 그려낸다. 이순신이 진린의 성품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한 일이나 진린이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한 일 등을 기술하고 마지막 해전에서 서로를 도우며 왜적을 섬멸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이순신의 장렬한 죽음이 서사되고 이 소식을 들은 진린의 아쉬움을 함께 드러내어 조선과 명이 왜적을 맞아 어려움을 같이 이겨낸 인상을 준다. 7월에 이미 풍신수실이 죽었음을 밝히고 그의 간활한 성품과 권력을 잡기 위한 행동 등을 소개하며 그 죽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왜적이 물러간 사실을 기술한다.

70번과 71번은 전쟁이 끝난 1599년의 상황이다. 원군으로 왔던 명의 군사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감을 이야기하고 임진왜란에 명이 보낸 원병과 물자를 소개하고 있다. ‘천조’라고 지칭하여 명을 숭앙하고 전쟁에 징발하여 보낸 군대의 인원과 장수의 수, 군량미를 비롯한 곡식과 막대한 양의 은 등을 기록해 두었다.

본디 <쇼동화역디설>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은 사건을 연도별로 나열하여 독자가 조선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처럼 조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한다면 대중의 독서물로 적합하지 않고 특정한 사건을 집중해서 살피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조선의 임금이 재위한 순서대로 큰 편제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왕 주변의 주요한 사건을 다루되 중요

인물의 일대기나 흥밋거리가 될 만한 일화는 그가 죽었을 때 한데 모아서 언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줄기와 같은 면모를 발견할 수 있으나 전체 비중으로 보면 조정의 모든 일을 다룬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서술이 훨씬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실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변화를 보인다. 임금과 주변의 일을 다루기는 하나 선조가 몽진을 떠나는 모습만 구체적으로 묘사했을 뿐 그 외 다른 사항은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왕의 일이 이야기의 뼈대가 되긴 하지만 다채롭게 형상화되지는 않고 전쟁 초반에 대패했던 장수나 전공을 세운 장군 및 의병장, 명의 원군을 지휘한 장수 등 인물 위주의 서사가 현장감 있게 펼쳐지는 것이 여타 시기의 기술 방식과 다르다. 역사서처럼 사실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기록하는 것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역사서사로서 일반 독자가 임진왜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일차적 목적이었을 것이므로 임금의 주변 상황만 제시한다거나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평면적으로 다루는 것은 저술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현장감 있게 표현되려면 조정에서 나누는 대화로만 이어져서는 안 되고 독자가 실제 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장면을 풍부하게 묘사해야 한다. 따라서 선조의 상황을 핵심으로 하여 조선의 역대설을 구성하되, 전투에 대한 내용은 전장에 있었던 인물의 시점으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작품이 역사서처럼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건을 독자에게 이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쇼동화역디설>은 역사 그 자체가 아니고 《조선왕조실록》도 아니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의 사실을 다루었고 마치 역사서처럼 실제한 사건을 연도별로 알리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지면에 기술될 수 있는 수 많

은 사건 중에서 작자의 주제의식에 의해 특정한 인물과 사건만 선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사실 그대로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 의도를 가진 작자에게 선택된 이야기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배열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쇼동화역디설>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보면 왜의 침략이 있기 전 조선의 모습을 먼저 제시하고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일방적으로 조선 군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다 선조가 몽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일과 각지의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인물, 명장들의 눈부신 활약 등을 풍부하게 그려낸다. 역사서사로서 임진왜란과 관련한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집필된 것이지만 이를 위해 실재했던 수많은 사건과 인물 중 일부만을 작자가 선택하였으며 그 서사의 비중 또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을 다룬 부분을 따로 떼어 한 편의 이야기로 조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문학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⁹⁾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쇼동화역디설>에서 사실을 단편적으로만 전달하지 않고 다양한 문예적 방식을 통해 역사를 더욱 흥미롭게 풀어내고자 한 작자의 기술 방식을 전쟁 서사의 도입부 제시, 조현과 이순신 중

9) 그렇다고 해서 <쇼동화역디설>이 소설에 다가간 것은 아니다. 권혁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서사의 중심축이 되고 이를 역사의식에 바탕하여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고소설’을 역사소설로 규정하였다(앞의 책, 10쪽). <쇼동화역디설>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역사의식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 소재로 인한 갈등이 서사 전개 중심축이 될 정도로 특정 사건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자살한 사건과 일화가 연속되어 소설적 풍부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소설로는 볼 수 없고 역사서사로 칭하는 것이 옳다. 본고에서는 <쇼동화역디설> 속 임진왜란 이야기를 살펴며 그 문학적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외 사건 배열, 전조에 대한 우호적 시선으로 나누어 살펴도록 하겠다.

1) 전쟁 서사의 도입부 제시

<쇼동화역디설>에서는 수년 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날 전조가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¹⁰⁾ 갑작스럽게 왜가 침략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충분한 조짐이 있는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려진다. 마치 소설의 발단 부분에서 사건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처럼 전쟁이 있기 이전 이야기가 선행되는 것이다.

첫째, 기이한 조짐이 여러 번 나타나 하늘이 미리 경고한 바가 있었음을 표현한다.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불길한 일이 갑자기 생겼음을 강조하여 참혹한 전쟁이 발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사옹원의 시루가 쇠소리를 냈고¹¹⁾ 강원도 바다에 안개가 덮이고 동해 고기가 서해로 갔으며¹²⁾ 건원릉에서 곡성이 났다는¹³⁾ 등의 기술은 전운을 감돌게 하며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을 알린다. 조선이 전란으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나운 전조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천문을 읽는 데 능했던 인물을 통해 하늘이 정한 운명을 말하기도 한다. 강서가 졸한 연도에 그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천상을 보고 임진왜란을 예견하였으며 가문의 길흉을 먼저 알아 후일을 부탁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한다.¹⁴⁾ 이러한 기술 방식은 인물의 뛰어난 점을 강

10) 《징비록》의 <녹후잡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조짐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임진록>에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재변에 대한 내용이 있다.
 11) 기축추의 한강수 습일을 피땀갓치 호리고 사옹원 밥짓는 솥시루가 쇠소리갓치 울더라
 12) 신묘에 강원도 바다히 기약이 텅히여 나오고 동해고기 서희의 가나니 요동사름이 시고기라 후더라
 13) 삼월의 건원릉의 곡성이 니시니 듯는지 송년후더라
 14) 승지 강서는 덩승 사상의 아들이니 거짓밧쳐 술의 숨고 밤의 천상을 보고 임진왜란

조하면서도 그러한 인물이 사라져 국운이 불운해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낼 수도 있다. 또한 임진왜란은 이미 하늘에 의해 정해진 흥사이므로 안타깝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미리 방비하여야 했음을 역설한다. 변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전에 천문에 정통하여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였다.¹⁵⁾ 왜가 강성한 것이 근심이라고까지 하였으나 변협이 살았을 때에는 조정에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선조가 죽은 변협을 떠올리는 내용이 그려진다.

하늘에 이상하게 뻗은 빛의 줄기를 통해 국가가 위험에 빠졌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천문에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바로 국가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과 닿아 있다. 왜적의 침입으로 송상현이 죽음에 이르자 왜장이 그를 장사지냈는데 붉은 기운이 하늘에 뻗어 전쟁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다.¹⁶⁾ 그리고 조현의 생애와 관련해서도 하늘로 뻗친 붉은 기운에 대한 언급이 있다. 동쪽에서 온 붉은 기운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북, 서, 남쪽으로 향했다는 것이다.¹⁷⁾ 조현은 이 빛살을 보고 다음 해에 왜의 병사가 이처럼 침략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한다.

이처럼 <쇼동화역디설>은 임진왜란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이전에 기이한 현상의 발생과 천문을 통한 예언, 하늘에 뻗친 빛살 등으로 조선왕조에 병화가 닥치리라는 것을 알린다. 갑자기 왜적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

을 알고 갈오더 가족이 맞당이 면경을 인하여 면허리라

15) 천문슈학을 무불정통하여 갑신년간의 자덜을 일너 왈 불출십년의 국가 반다시 병을 괴로이 녀이리라 호고 쏘 경연 가운데 말하여 갈오더 일본이 강심호고 마리 번사하니 타일 근심을 말못홀다 허더니

16) 평조신이 관으로 염하여 성밖과 못고 표를 세워서 기록호고 시를 지어 제 지너니 일노부터 남문우의 상허 불근 기운이 하늘의 썩치여 슈년불멸허더라

17) 신묘 칠월 초이일의 금산 박경노로 더부러 영병우의 올넛더니 미신시지음 되어 홀연 불근 기운이 동방으로부터 세가지 논히여 하나흔 북을 향하여 기리 하늘의 벗치이고 하나흔 서를 향하여 기리 반천의 벗치고 하나흔 남을 향하여 기리 쏘 그 반이 되거늘 현이 왈 슈길의 병이 임의 움직이는지라 명연춘의 반다시 이 기운 갓트리라

라 예견 가능했던 하늘이 정한 운수이며 이상 현상을 통해 초자연적 존재가 조선왕조에 경고하기도 한 바이다. 하늘의 뜻을 제대로 읽고 정치에 반영했다면 전란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사건의 발단 속에 녹아 있다. 어찌되었든 임진왜란은 조선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 작자의 입장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해 전부터 발생했던 괴이한 조짐을 나열함으로써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둘째, 당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알고도 방비를 소홀히 하여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 상황을 서술한다. 왜적이 침입하여 조선이 어렵게 된 것은 하늘의 운수가 그러한 탓도 있지만 미리 알았음에도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던 조정의 잘못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하늘이 정한 운수를 헤아린 후 조정 대신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운명론에만 기대지 않고 조선의 정치가 잘못되어 전쟁이 확대되었음을 밝힌다.

통신사를 보내어 왜의 정치적 상황을 탐지하도록 하였으나 당색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을 기술한다.¹⁸⁾ 서인인 황윤길은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말하고 풍신수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반면 동인인 김성일은 전쟁의 위협은 없으며 풍신수길은 두려워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결국 동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전쟁에 대한 방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때 동인이었던 허성이 홀로 왜가 올 것이라고

18) 삼월의 통신사 황윤길 등이 와 왜스 평조신 등이 한가지 오다 눈길이 썩히되 반다시 병해 잇시리라 하니 김성일이 갈오되 신인즉 그런 정사를 보지 못히엿는이다 상이 무르시되 슈길이 엇더히더노 눈길이 말히되 그 목광이 삭삭히야 담과 실기 잇는 사를 갖더이다 성일이 왈 기목이 여셔히니 부족외애러이다 디기 성일이 일본의 니르러 눈길이 광겁히물 분히 녀긴 연고로 말마다 상좌히미 이갓히니 뉴성농이 성일을 쥬장히야 동셔당이 각각 그뉴를 위히디 홀노 종사관 허성이 썩히디 왜 반다시 올이라 하니 당시의 성이 호당 아니히를 올케 녀기더라

말하여 봉당에 엮매이지 않은 자세를 옳게 여겼다는 평가가 달려 있는데, 이는 곧 작자의 의견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국가가 위협에 빠진 상황에서 동서로 편을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한 허성의 태도가 가장 올바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정은 당쟁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술하여 조정의 잘못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풍신수길의 보낸 서신을 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당색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왔음을 한 번 더 기술한다.¹⁹⁾ 나라가 위협에 빠진 순간에도 당쟁을 하느라 의견이 합치되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왜서에 명을 정벌하러 가는 길을 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명에 보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서인은 주문해야 한다는 의견, 동인은 왜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두렵다는 의견을 냈다.

통신사가 돌아온 뒤에 보고한 내용이 당파별로 달랐고 같은 서신을 보고서도 다른 판단을 내린 사실을 전쟁을 기술하기 전에 굳이 삽입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흐름이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왕조가 전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전란이 일어날 운수였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당쟁으로 상실하였음을 먼저 서술하여 병화가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힌 것이다.

셋째, 풍신수길의 야욕을 그려 임진왜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드러낸다. 풍신수길의 조선 왕실에 보낸 서신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방자한 성격을 드러내고 무력으로 주변국을 침략하겠다는 야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조선이 ‘천조’라고 숭앙하는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길

19) 잇씨 왜서를 보고 눈두슈 황정욱은 씨히디 맛당이 은휘치 말고 상국의 주문히리라 하고 니산히 김슈 등은 씨히되 주문 후의 천죄 도로 우리 왜국의 통신히므로 죄를 삼을가 두려히느이다

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하여 그 무례함을 드러낸다.²⁰⁾

임진왜란이 하늘이 정한 운수이기도 하였고 이에 대한 조선의 대비가 허술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충분히 기술한 뒤에 전쟁을 일으킨 주체인 풍신수길의 야욕을 드러내어 그 무도함을 고발하고 있다. 아무리 전란이 오래 전부터 예견된 운명적 사건이고 조선이 이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방비하지 못했다고 해도 왜가 명나라를 치겠다는 불경한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상황에 침략의 야망이 더해져 조선이 전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사정을 기술한다.

왜가 조선을 침략한 일에 대해 역사적 사건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왜에 대한 평가까지도 덧붙여 비난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유학을 존송하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왜는 부도와 귀신을 섬기는 이단의 무리이고 성품이 음흉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킴에 거침이 없다는 것이다.²¹⁾ 뿐만 아니라 왜의 귀인이나 부녀자들이 이에 옷칠을 하여 검게 만드는 풍속이 있음을 말하며 당시 <소동화역디설>의 여성 독자에게 왜의 야만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전쟁과는 무관해 보이는 서술이 드러난 것인데 독자가 왜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동화역디설>은 임진왜란을 기술하기 이전에 전쟁이 일어나

20) 왜서의 같오디 니 탁티혀여실 씨의 조피 썸의 일류이 회중의 들거늘 상보는지 같오디 날빛즌 밋츠난바의 비최여 임치 아니미 업스리라 호고 당년의 팔피문인성호고 스희몽위경하니 이러호 고이호를 의지호면 전필승공필취라 인성일세에 불만빅년하니 엇지 울울히 오리 이에 거호리오 흥번 썬여 바로 드명국의 드러가 우리 조경풍속을 사빅여쥬의 밧구고져 호노라 귀국이 몬져 모라드러 조회호야 월녀 잇고 근우 업는진져 호여시니

21) 철도 녹십일쥬 육빅십일현이니 그 풍속이 귀신을 밋고 부도를 섬기고 귀인과 부네니를 옷칠호는고로 일흠을 흑치호더라 성품이 음교호고 죽기틀 경히 역이고 치고 지르기를 조하호더라

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과 상황을 나열하였다. 갑자기 풍신수길의 바다를 건너와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음을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하늘에서 조선을 위해 경고했던 불길한 징조도 있었고, 천문에 통달한 인물의 예언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통신사를 보내어 왜의 정세를 탐문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풍신수길의 야욕으로 결국 조선은 전화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쇼동화역디설>은 이러한 전쟁 전 상황을 선택하여 서술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위태로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하여 역사적 사건의 사실적인 기술에만 그치지 않고 임진왜란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2) 조현과 이순신 중심의 사건 배열

<쇼동화역디설>은 역사적 사실을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하되 임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전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서술하면서부터는 선조와 관련한 내용은 작품의 뼈대를 지탱하는 정도로 축소하고 전투를 지휘한 인물과 해당 전투의 승패 등과 같은 전쟁의 추이를 알리는 쪽으로 서술 방식이 변모하였다. 특히 임진왜란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이 전개되는 양상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치열했던 전투를 현장감 있게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의 한가운데 조현과 이순신이 있다. 임진왜란에서 활약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작품에서 특별한 관심을 쏟은 것은 조현과 이순신이다. 임진왜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전쟁의 초반 명장으로는 조현을 선택하고 전쟁이 끝날 무렵의 명장으로 이순신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육전에서는 개전 20일 만에 도성이 함

락되는 등 패퇴가 계속되었는데 이순신은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선 수군에 안겨 주었으므로²²⁾ <쇼동화역디설>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의병장 중에서 오직 조현을 부각하여 서술하였다는 것은 작자가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수호한 영웅으로 그를 선택했음을 말해 준다. 다음은 이 작품에서 조현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① 조현은 상소 때문에 정배되는 일이 많았는데 적소에서 일본 통신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또 올린다.
- ② 정여립이 역모를 꾀한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으므로 선견이 있다고 하여 해배되었는데 곧 통신사가 그르다는 상소를 올린다.
- ③ 의병장 조현이 청주를 회복하다.
- ④ 조현이 금산성에서 칠백 명의 군사와 더불어 항전하다가 전사하다.
- ⑤ 죽은 지 나흘이 되어도 눈은 부릅떠 있고 수염이 흔들려 살아있을 때와 같다.
- ⑥ 조현은 본디 한미하나 힘써 배우고 몸소 밭 갈아 모친을 봉양하였다.
- ⑦ 소시에는 이이와 성혼을 스승으로 삼았다.
- ⑧ 궁중의 불사봉향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바른 소문이 자자했다.
- ⑨ 여러 번 상소하여 왜의 사신을 죽일 것을 청했다.
- ⑩ 주춧돌에 유혈이 만연할 정도로 머리를 두드리고 사흘 동안 움직이지 않으며 왜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사를 정비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며 기롱하자 조현은 내년에 산속에 도망할 때 자신의 말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 ⑪ 일찍이 옥천 산사에서 슬피 울고 네 명의 승려에게 밥을 대접하며 내년에 왜란이 있을 때 자신이 기의하면 와서 종사하라고 하였다.
- ⑫ 신묘 칠월 초이일에 금산사에 올랐다가 붉은 기운이 동쪽에서 와서 세

22) 이민웅, 앞의 책, 196~197쪽.

방향으로 나뉘어 뻗치는 것을 보고 왜적이 이미 움직이므로 내년 봄에 반드시 이 기운 같을 것이라고 하였다.

- ⑬ 임진 삼월에 성묘하고 제문을 지어 날리며 하직 인사를 하자 친한 벗이 믿지 않으며 피란할 곳을 물었는데 산에 들어가면 면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 ⑭ 조현의 부인이 죽자 사람들이 반장(返葬)하자고 하는데 조현은 왜적이 여름 전에 올 것이라며 옥천에 갈장(渴葬)하였는데 그날 동남쪽에서 우렛소리가 들리고 도적이 바다를 건넜다.
- ⑮ 조현이 천상을 보고 북도에 들어간 두 왕자가 왜적에 잡힌 것을 알았다.

곽재우나 김덕령 같은 의병장은 전투에서 승리한 당시에만 잠깐 서술한 것에 비해 조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상소를 여러 차례 올리는 인물로 그려진다.²³⁾ 유배지에서도 상소하는 등 조정에 자신의 뜻을 개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드러내어 조현을 의병장 이전에 탁월한 정치가로 형상화하고자 한 작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소개된 상소의 내용은 왜의 사신을 죽이라는 청이나 통신사를 보내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조현은 잦은 상소 때문에 정배까지도 되었는데²⁴⁾ 일찍이 정여립의 역모를 예견하였기에 해배되기도 한다. 그러나 풀려난 이후에도 왜의 침략을 경고하는 상소를 올려²⁵⁾ 선조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는데 이미 역모를 알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독자는

23) 도현이 중봉 만언소를 올이고 길쭉로 경비하였더니 또 독기를 가지고 꺾문뺏기 복지 상소하니 양스함계해야 찬비하고 조정이 장차 일본통신스를 보낼시 현이 격소의셔 듯고 또 상소하여 간헐거늘

24) <임진록>에서도 조현은 국가적 재변을 보고 천문을 읽은 뒤 변란이 있을 것임을 예견하여 상소를 올린다.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간청하나 조정에서는 요언을 내어 인심을 요란하게 한다고 원찬한다.

25) 조현을 특별히 노타 현이 일즉 상소하여 여립이 만다시 반홀나 허여더니 잇찌 선견이 이시무로 곳 노호니 곳 상소하여 통신그르를 의논호디 감사 권징니 역만호니 현이 왈 죽은 여립을 공이 오히려 두려워호니 산 슈길이 오면 공이 맞당이 엇지호랴느냐

개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임진왜란은 일어날 것이므로 전쟁의 발발이 가까워짐에 따라 독자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빼어난 인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선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것이며 이에 조헌의 위대함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조헌의 인품과 선견지명에 대한 기술이 선행된 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헌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의병을 일으킨다. 청주를 되찾은 후 근왕(勤王)하려다 금산으로 향하게 되고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하고 마는데 의(義)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조헌과 군사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진다.²⁶⁾ 중과부적이었으나 끝까지 맞서 싸웠고 화살이 다 떨어지자 맨주먹으로 항전하며 장수인 조헌 주위에서 칠백인의 의병이 모두 전사한 것으로 형상화한다. 조헌이 전사한 후 그의 줄기가 바로 이어지는데 일대기를 매우 상세하게 서술해 놓았다. <소동화역디설>은 왕실과 조정의 사건을 주로 서술하다가 저명인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일생을 압축하여 기술하는 것이 특징인데, 조헌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무려 8면의 분량을 할애하여 일대기를 그린 것이다. 조헌의 일생 중 임진왜란을 예견한 일화가 대부분으로²⁷⁾ 다음해에 전쟁이 일어남을 말한 것, 네 명의 승려에게 자신이 의병을 일으키면 종사하라고 한 것, 천문을 보고 왜적이 올 길

26) 봉상청접 조헌이 승당 영규로 더부러 금산 도적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드 헌이 임의 청주를 회복하고 결의코 근왕하려 헛다가 온양의 니르러 금산적이 다시 성호를 듯고 도라와 다시 싹홀시 (...중략...) 헌이 하평왈 오날은 다만 죽오미 잇셔 맛당이 혼의싹틀 붓그러오미 업스리라 (...중략...) 헌이 북을 울여 싹흙을 지축호를 더욱 급히헌니 군시 닷토야 죽기의 니르고 빈주먹으로 쑤드려 혼스름도 자리를 썬나는지 업는지라

27) ‘명연의 산꼭간 도망홀적 반다시 너말을 하리라’, ‘명연의 왜란이 닛시면 너맛당이 거 의홀거시니 오날날 이 밥 먹은 즈는 곳와 종스하라’, ‘슈길의 병이 임의 움죽이느니라 명연춘의 반다시 이 괴운 갓트리라’, ‘미리 산의 드러가면 가히 면호리라’, ‘도적오미 붙여름을 지니지 아니리라’, ‘이는 이에 천괴라 도적이 바다를 건네시리라’, ‘처음은 흥조의 화밧혔다 호엇더니 다시 살피니 북도 드러간 두왕지 스로잡힌져 문인이 그날을 기록호니 조곰도 그르지 아니터라’

을 예측한 것,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부인이 죽자 예월(禮月)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장사지낸 것, 북도로 간 두 왕자가 잡힌 것을 안 것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유학자이자 정치가로서의 모습도 표현되어²⁸⁾ 일찍이 이이와 성혼의 문인으로 궁중의 불사봉향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유생들의 신임이 높았음을 이야기한다. 앞서 왜에 적대적인 상소를 올렸던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맹렬한 방법으로 주청한 일을 소개한다. 조현의 줄기를 통해 그가 선견지명이 있어 임진왜란을 일찍부터 알았으며 이를 대비하고자 끊임없이 상소하고 주청하였으나 이러한 시도가 부정되었음을 안타깝게 서술하였다. 조현은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번번이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정은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스로 의병을 모아 조선을 지키려 한 것이다. 청주에서 승리를 거두고 근왕하려 하였다는 서술은 그의 충(忠)을, 금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지속했다는 서술은 그의 의(義)를 대변한다.

왜적의 침략에 조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연히 일어난 의병장들은 자신의 고장을 지키려 분투하였다. 객관적 사실의 전달을 위해 일시와 장소, 전투의 승패 여부만 기술해서는 이러한 사정이 충실히 반영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만 단편적인 방법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인물을 인상적으로 그리면서 그 밖의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흥미로운 구성에 유리하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을 선택하여 임진왜란 서사의 초반을 이끌고자 하였다. 특히 조현이 적합하였다고 여

28) 현이 본더 흠미하나 힘써 비호고 몸소 밧갈아 어미를 봉양하야 소시의 니이와 성혼을 스승삼고 향실의 입직하얏더니 불공으로 향을 티일시 상소왈 구독성경하고 슈봉 불향하든 츄마 못홀비라 하니 일노부터 바른 소문이 자자하더라 여러번 상소하야 왜스를 버히물 청하고 또 극히 말하디 슈길이 반다시 비약홀거시니 청컨디 군스를 엄히하여써 기두닐나하고 쥬초의 머리를 두드려 유혈이 만면하고 사흘을 혼곳의셔 움직이지 아니하니

겨지는데 <쇼동화역디설>의 작자가 서인 편향적인 면이 있어²⁹⁾ 당시 서인의 중심인물이었던 조현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현은 학문적 수준이 높고 두루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또한 평소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거침없는 상소문을 올린 전력이 있고 왜와의 외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으며 왜가 전란을 일으킬 것을 수차례에 걸쳐 예견하였다는 것이 임진왜란 초반의 대표적 인물로 그를 내세울 특별한 이유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문학적 감동을 극대화하기에 적격이었을 것이다.

조현의 정치가적인 면모와 끈은 성품을 부각하기 위해 옳다고 여기는 일에 주저 없이 상소를 올리는 모습으로 그를 이 작품에 처음 등장시켰다면, 이순신은 유성룡의 천거로 임진왜란이 있기 전 해에 전라좌수사에 오르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처음 등장한다.³⁰⁾ 다음은 이 작품에서 이순신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① 유성룡의 청으로 정읍현감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삼다.
- ② 이순신이 원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거제바다 가운데에서 왜적을 크게 물리치다.
- ③ 처음에 이순신이 대선을 지었는데 거북의 등 같은 배 위에 칼과 송곳이 꽂혀 있어 도적이 뛰어오르기 어렵고 군사와 사공을 그 안에 감추어 진퇴종횡이 나는 듯하다.
- ④ 이날 전투에서 활을 맞았는데³¹⁾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알다.

29) 윤보윤(2018), 앞의 논문, 241~245쪽.

30) 정읍현감 이순신을 썬바 절니슈사를 삼으니 뉴성룡의 청일너라

31) 실제로 이순신은 앞장서서 독전하다가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이민웅, 앞의 책, 148쪽). 인용문 ⑦번도 유탄에 의한 것이지만 <쇼동화역디설>에서는 모두 활에 맞은 것으로 기술된다.

- ⑤ 하동, 사천, 고성 앞 바다에서 여러 번 왜적을 물리쳐서 자헌대부에 승계되다.
- ⑥ 고성 견내량에서 왜적을 유인하여 한산 앞 바다에서 격파하다.
- ⑦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삼다.
- ⑧ 원균이 이순신을 시기하던 즈음에 소서행장의 부하인 요시라가 가등청정이 바다 건너는 날을 알려주었는데 이순신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간이 나국을 청하고 원균이 그 자리를 대신하다.
- ⑨ 모친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다 죽으니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하다 아산에 들러 성복하고 다시 권율의 군중으로 가다.
- ⑩ 원균이 칠천량에서 대패하자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삼다.
- ⑪ 이순신이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왜적을 격파하여 왜장 마다시를 죽이고 군영을 잘 운영하여 세력을 되찾다.
- ⑫ 이순신이 진린을 잘 대접하고 그에게 왜적의 수급을 양보하여 명군의 지휘권을 획득하다.
- ⑬ 진린에게 잔치를 베풀 때 왜적이 이르렀는데 이순신이 홀로 나아가 적선 사십 척을 불사르자 진린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다.
- ⑭ 소서행장이 뇌물을 퇴로를 빌리고자 하였는데 이순신은 단칼에 물리치고 진린도 이순신에게 부끄럽다며 거절하다.
- ⑮ 이순신이 죽기를 결단할 것이니 반드시 도적을 멸해달라고 하늘에 기축하다.
- ⑯ 이순신과 진린이 서로 구원하며 왜적을 격파하다.
- ⑰ 이순신이 활에 맞아 위태로운 순간에도 싸움이 급하니 자신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다.
- ⑱ 이완이 이순신의 죽음을 숨기고 싸움을 재촉하여 왜적이 물러나다.

이일과 신립이 잇따라 패하여 선조가 몽진을 떠나고 한양이 왜적에 점령당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이어지다가 비로소 이순신이 거둔 승전이 상세히 기술된다. 임진왜란사에서 이순신의 대표적인 전투로 한산대첩, 명

량대첩 등을 들고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 해전에 활용하였음을 의의로 삼는데³²⁾ 그러한 사정이 <소동화역디설>에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사천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과정을 제시하고 왜적이 입은 피해를 기록하였다.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이 사천해전에 참전하게 된 이유는 경상우수사 원균에게서 구원 요청이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하들이 당당한 지경만 지킬 것을 건의하였는데 영남도 조선이라는 몇몇 군관들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한산도로 출정한다.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한 것은 물론이고 왜적을 섬멸하고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더 큰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이순신의 우국충정을 부각한 것이다. 전선 팔십여 척으로 적선 스물여섯 척을 불태웠음을 상세히 제시하고 이때의 모습을 ‘바닷물이 썰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인상적으로 그려낸다. 이 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 활용되었으므로 거북선의 모습과 전투에서의 이점을 상술하기도 한다.³³⁾ 거북선은 배 위에 칼과 송곳을 뾰뾰하게 꽂고 그 위를 띠를 엮어 덮었으므로 왜적이 배에 뛰어오를 때 몸이 상하는 데 제적이었으며 사공과 군사를 배 안에 각각 감출 수 있어 총을 쏘고 노를 젓는 데 서로 방해가 없어 해전에서의 활약이 대단하였음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한다. 이순신이 전쟁 전에 미리 이 배를 건조하여 대비하였으므로 왜적과의 해전에

32) 이민웅, 앞의 책, 144~174쪽.

33) 절노좌수사 이순신이 왜적을 거제바다 가운데 크게 파하다 (…중략…) 순신이 이에 전선 팔십여 척을 거느려 한산도의 원균을 모아 유도의 도적을 만나 순신이 제군을 지척하여 적선의 디질너 바람을 향하여 화통을 노화 그비 스물여섯을 다 사라버리니 바닷물이 썰는지라 (…중략…) 처업의 순신이 디선을 지으니 그 제도 비우의 널죽을 폐여 거북의 등갓고 우의 열십자 가는 길이 이셔 슝름 하나 농납하고 그밧근 다 칼과 송곳을 꽂고 사방 총놓는 궁기 너고 군사와 사공을 그 가운데 감초아 진퇴총형이 나 눈듯흔지라 썩홀터 썩를 엮거 우의 덩허 칼과 송곳으로 드러나지 아니케 하니 도적이 썩여오른죽 날의 상하고 들너싼즌 총을 노코 적선 가운데 횡횡하니 군식 상치 아니하고 향흔 바의 도적이 쓰러지니 도적이 바라보고 밭을 쫓고 부르자자더라 바야호로 썩홀써 순신이 활을 마즈 왼썩엇기로부터 등가지 이르더니 썩흠을 파하고 비로소 사름으로 향여곰 갈노써 파니니 군중이 시지하다

서 활약할 수 있었음을 밝혀 그의 명장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한다. 심지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아픈 기색을 하지 않아 전투가 끝나고 치료를 하며 주위 사람들이 알았다는 표현을 통해 나라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산대첩에 대한 기술은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³⁴⁾ 주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았다. 견내량에서 왜적을 만나 도망가는 척하며 한산 앞 바다로 유인해서는 적선 칠십여 척을 대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의 모습은 ‘비린 피 바다히 붓더라’고 표현한다. 이순신의 비상한 병법과 책략을 부각하고 대승을 알린다.

연전연승을 거두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으니³⁵⁾ 정유재란 즈음하여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하게 된 정황이 서술된다. 앞서 조현은 선견지명으로 조정에 왜를 배척하고 군사를 기를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소하였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체적 고통을 겪고 못 사람들의 조롱을 얻었다. 이순신은 왜적의 교활한 계략과 이를 간파하지 못한 조정의 무능한 대신들 그리고 원균의 시기심 때문에 조선 수군에 꼭 필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삭탈관직을 당한다.³⁶⁾ 하지만 ‘순신은 명장이라 가히 죽이지 못

34) 이순신이 크게 왜병 도적을 고성 결니양의 파하다 잇씨 왜쥬 사십만을 크게 니여 서히로 조쥬 또 순신이 니억기로 더부러 결니양의 도적을 만나 거짓 지는 듯시 도적을 달니여 한산 앞 날니미 군스를 돌려 급히 쓰화 적선 칠십여척을 다 죽이니 비린 피 바다히 붓더라

35) 이순신으로 삼도수군통제사를 삼다

36) 통제스 이순신을 옥으로 잡아드려 삭직하고 종군하다 처음의 원균이 순신의 구원할 물 감스흔여 심히 상득흔여 지나더니 (...중략...) 마자치를 지촉흔니 순신이 도적의 간스흔물 의심흔여 여러날 지회흔더니 요시라 왜 쏘와 말흐되 청정이 임의 하류흔니 엇지 중간의셔 죽이지 아니흔엿느냐 거짓이달은 상을 보이니 더간이 나국흔물 청하고 균으로써 더신흔니 (...중략...) 순신은 명장이라 가히 죽이지 못홀지라 이감사 숙직하고 백의종군을 식인디 순신의 모친이 아산 잇다가 그 잡히를 듯고 근심흔여 놀나 죽으니 순신이 옥의 나와 아산을 지나다가 성복하고 궤물의 군중으로 곳가니 듯는지 슬허흔더라

홀지라'는 서술로 이순신의 능력을 부각한다. 국난을 타개할 영웅이 아무 죄도 없이 백의종군하고 이 와중에 어머니마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져 '덧느지 슬허허더라'는 평이 덧붙을 정도로 이순신의 일생에서 가장 참혹한 시기로 그려진다. 영웅인물의 고생담은 기왕의 소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화소로서 익숙한 사건 전개 방식이다. 당장의 고난이 클지라도 결국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 것을 모든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극적으로 구성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백의종군과 관련한 서술은 간략하게 종결되고 정유재란이 다시 발발하며 원균의 대패가 바로 제시된다. 이로써 이순신이 고생을 끝내고 복귀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원균은 부정적 인물이고 앞서 상세히 기술되기도 않았지만 이순신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한 부분은 장황하게 표현한다. 이 작품에서 원균은 이순신이 정해 놓은 규약을 다 변경시키고 매일 술에 취해 애첩을 병영에 들이며 군령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등 무능의 극치를 보이다가 크게 패하고 심지어 몸이 비둔하여 도망 중 나무 아래 쉬다가 왜적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려진다. 원균을 이렇게 묘사할 수록 이순신의 출중한 전술과 군영 운영 능력이 두드러질 수 있다.

원균이 대다수의 전선을 잃은 상황에서 이순신은 십여 척의 배만 가지고 전투에 대비한다. 명량대첩을 기술하면서 이순신의 명성을 듣고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군영이 회복되었음을 부각한다.³⁷⁾ 군사적 규모

37) 이순신이 왜병을 진두 벽파정 아리 파하다 순신이 진도의 니르러 병선을 거두어 십여척을 어드니 잇써 희변사름 비타고 피란한지 순신 일흠을 듯고 다 즐거와 붓쫓는 지라 홀연이 군령을 나리와 같오되 오날밤의 도적이 텅치리니 제군은 계엄하라 (...중략...) 평명의 적선 오류벽이 바다를 덮혀 올라오고 그 당쉬 마다시 본디 슈전후기로 일흠잇는지라 물이 다 흥흥허거늘 순신이 이에 피란허는 비로 버러 의병을 삼고 스스로 전선을 거느려 압홀 당하여 바로 나아가니 거제혈영 안위 비로 전진을 썰너 죽기를 한사하고 싸흔지라 순신이 모든 비를 지축허야 도적 삼십여슈를 파하고 빗디를 치고 밍세를 하니 도적이 감히 디격지 못허고 다라나니 디퇴여 마다시를 죽이다

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직접 전선을 거느려 왜장을 죽이고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을 이야기한다.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무용담은 독자를 통쾌하게 하기에 적합한 소재이다. 단순히 이순신의 승전만을 나열하지 않고 이순신이 사직당한 이야기와 왜의 재침으로 원군이 대부분의 병선을 잃고 패전한 이야기 뒤에 이순신이 대승한 내용을 이어지게 하여 문학적 구성을 꺾하였다.

복귀하여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후 이순신의 행적은 주로 진린과의 일화로 소개된다. 진린은 ‘슈전 잘 하고 군사를 잘 부리나 성품이 급하고 사오나와’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순신이 진린의 성품을 간파하고 비위를 맞추어 명군의 지휘권을 얻는 것으로 그려진다. 진린은 이순신을 명장이라고 극찬하기도 하고 왜장의 뇌물도 이순신에 부끄럽다며 거절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술된다. 이 작품에서는 명의 장수를 대개 우호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진린 또한 부정적인 모습은 최소화하고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이순신과 진린은 함께 전투에 나아가 서로를 도우며 왜적을 격파한다. 이러한 모습이 끈끈한 전우애로 묘사되며 조선과 명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어 중화사상 속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자긍심을 표현한다.

<소동화역디설>에서 임진왜란 후반부에 활약한 명장의 위치를 점한 이순신은 전란에 미리 대비하여 거북선을 건조하여 두고 지략과 병법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며 연전연승하므로 해변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형상화된다. 앞서 조현이 충과 의를 대표하는 유학자적 기질을 가진 인물로 그려졌다면 이순신은 해전에서 패하지 않는 명장으로 표현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순신이 참전한 해전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술된다. 노량해전을 기술하면서 이순신이 전투에 앞서 하

순신이 원군이 피호를 당하여 비와 기계를 다스리고 쇼금을 구어 발미하여 슈월지간의 곡석 슈만석을 엮고 장식 구름모듯하여 군영이 다시 썰치더라

늘에 기원하는 모습을 그리며 왜적을 섬멸할 수만 있다면 죽기를 결단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어 명장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³⁸⁾ 그러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조선 수군의 기세가 꺾일 것을 염려할 뿐이다. 그런데 조현과 다른 점은 즐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매우 소략된 형태의 후일담이 나타나는데 이순신의 죽음에 대한 진린과 명군 및 조선 백성의 반응을 기술한 것이다. 진린은 이순신이 전사하였음을 짐작하고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명의 군사들은 고기 먹기를 삼가는 등 이순신이 명군에게도 대단한 존재였음이 부각된다. 이순신 사후에 남쪽의 백성들이 울면서 글을 지어 제사까지 지내는 모습을 언급하여 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루 민심을 얻은 인물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쇼동화역디설>은 임진왜란의 중심 사건을 기술하면서 조현과 이순신을 주요 인물로 다루고 있다. 역사서사로서 임진왜란 때 정치적 혹은 군사적으로 활약하거나 전투에서 패배하여 도망가거나 전사한 다수의 인물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는 없다. 분량의 경중을 선택하는 데는 반드시 작가의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의 나열과 문학적 부연 사이에서 단편적인 사실만 전달된 인물이 있는가 하면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한 일화가 소개된 인물도 있었다. 조현과 이순신은 후자로서 이 두 인물을 활용하여 임진왜란의 초반 상황을 더욱 핏진하게 묘사할 수 있었고, 참혹했던 전쟁이 마무리되던 시기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역사서처럼 모든 사건을 일정하게 나열할 수는 없기에 특정한 인물을 선택하고 그들을 다채롭게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38) 이날밤의 순신이 선상의 괴축왈 금일의 진실노 죽기를 결단홀거시니 원컨더 하늘은 반다시 도적을 멸호쇼셔 빌기를 파호고 비 오십적을 스니 형장이 의양으로 다라나고 (...중략...) 친히 시석을 범호고 손으로 스스로 북을 치더니 나는 활이 그 가삼을 마즈 등뒤으로 나니 좌우 붓더러 장가온더 드러간디 순신이 왈 싯흠이 바야호로 급흐니 삼가 니 죽으믈 말 말나 말을 맞고 죽으니 형즈 완이 그 초상을 숨기고 싯흠 지축을 더욱 급히호여 도적이 물너나다

기술해 나갔다. 이에 <쇼동화역대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선조에 대한 우호적 시선

<쇼동화역대설>은 임금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임진왜란이 기술된 부분만큼은 현장감 있는 전달을 위해 관련 인물의 시점으로 사건을 그려내어 선조를 최소한으로 노출시킨다. 전쟁이 발발한 뒤 조선왕실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는 임금의 몽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사건 즉 선조의 정치적 무능을 보일 수 있는 일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평소 전쟁에 대한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왜적이 침략한 지 며칠만에 도성 근처까지 점령당한 것은 임금을 비롯한 지배층의 잘못이다. 그 동안 전쟁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조가 도성을 지키지 않고 피란을 떠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작자는 선조의 험난한 여정에 대해 애뜻한 시선으로 일관한다. 일단은 선조가 서행을 결단하여 시행한 것이 큰 사건이므로 정확한 날짜와 개요를 중심 문장으로 기술한다.³⁹⁾ 그리고 몽진을 결정하기 전인 ‘선시에’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음을 상술한다.⁴⁰⁾ 그래도 전란을 막을 수 없자 결국 선조는 재상들과 피란 여부를 상의하는데 모든 신하들이 성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 오직 이산해만이 몽진을 권하고 이에 선조는 오히려

39) 사월삼십일의 디기 셔순하시다

40) 선시에 우의정 니양원으로 슈성디장을 삼고 박충간으로 순검사를 삼아 도성을 직회고 김명원을 기복하야 도원슈를 삼아 한강을 직회더니 이일의 피보 니르니 인심이 흥흥흔지라 광희군을 세워 세즈를 삼아 오도병을 부르고 니원익으로 평안도 도순찰스를 삼고 최홍원으로 황희도 도순찰스를 삼다

반대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⁴¹⁾ 종사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선조였으나 평소에 아전이 뇌물을 받고 상변군을 놓아주어 도성을 지킬 병력이 부족했으므로 결국 몽진이 결정된 것으로 기술한다. 임금의 잘못은 감추고 어쩔 수 없이 피란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선조가 몽진을 떠나는 모습은 상당히 애처롭게 기술된다. 내전은 밤길에 어려움을 겪어 이항복이 촛불로 인도하는 것에 고마워하고⁴²⁾ 선조는 이산해와 유성룡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기도 한다.⁴³⁾ 거가를 호위하던 하인들이 배가 고프 나머지 임금의 먹거리를 탈취할 정도로⁴⁴⁾ 행렬의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이 서술되어 선조의 불우한 형편이 부각된다. 심지어 거가가 개성으로 떠나고자 하나 호위대가 흩어져 더 나아갈 수 없어서 지방 수령의 도움으로 인원을 충족하고 궁인의 양식까지 조달하는 모습까지도 기술하여⁴⁵⁾ 왕실의 행렬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계속해서 드러낸다. 전란을 극복해야 할 책임자로서 선조가 수행해야

41) 초혼의 지상을 불너 일을 의논홀시 상이 동상짜히 안자 스초불을 발키시니 영의정 니산희 성 바리기를 세운디 제신이 다 버리지 마르시물 청하고 동족이 함문밧기 모히여 통곡하니 상이 가라스디 종신 이에 잇시니 니 장춧 어더로 가리오

42) 상이 용복으로 치적을 잡고 돈의문으로 나시고 니전은 시녀 십여인을 거느리고 거러 인화문으로 나시니 밤이 어두어 지척을 문간치 못흔지라 오직 니항복이(오성부원군) 초불을 잡고 압히 인도하니 니전이 그 성명을 무르시고 춤으로써 권면하시다

43) 상이 역관의 쉬여 더신을 불너 같오스되 니모유모 일이 이에 니르니 니 장춧 어더로 가리오

44) 초경의 동과역의 니르니 파쭈목사 허진과 장단부스 구효년이 지디 차원으로 약간 어쭈를 배푸렀더니 호송흔 사람이 종일 쭈려 어즈러이 부엌 가운데 드러가 닷토아 집어먹으니 상공이 장춧 쫄할지라 효년이 크게 두려 도망흐다

45) 니튼날 기성으로 향코져 하나 아전과 군시들이 도망흐야 호위홀 사람이 업더니 황히 감시 조인득이 군시를 거느려 구원하려 드러올시 서흥부시 남억이 문져 이르러 군시 슈빅과 말 오십필이 닳는지라 일노써 비로써 썬날시 스약이 나아와 같오디 궁중스름이 어제 임의 굶고 오늘도 먹지 못흔지라 길을 갈 슈 업다하니 남억의 군중의 디소미 두어말을 취하야쎄 쭈고 나조히 초현참의 니르니 인득이와 궤회홀시 노중의 장막을 치고쎄 마지니 빅관이 비로소 먹기를 었다

할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선조가 고생스러운 여정을 지속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정의 대신들이 무능하여 전쟁이 일어났고 임금은 이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선조가 몽진 중에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정사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기술한다.⁴⁶⁾ 도성을 떠나지는 의견을 냈던 영의정을 파직하고 유능한 인물에게 기회를 준다는 언급을 통해 선조가 피란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충만함을 내보이는 것이다.

전쟁에 임하는 선조를 우호적으로 그리려는 시도는 계속된다. 전세가 나아지지 않자 평양을 떠나 더 위쪽으로 가야 한다는 대신들의 의견이 있으나 선조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평양성을 지킬 것이라고 효유하여 부르는 감격하여 통곡한다.⁴⁷⁾ 몽진의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생각은 아예 감추어지고 대신들이 의논한 바대로 거가가 따를 뿐이다.⁴⁸⁾ 그래서 선조는 거가의 이동과는 상관없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만 형상화된다.

아무래도 조선왕조의 역사를 기술하는 입장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삿일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치적을 기리는 것은 당연했을지라도 정치적 판단에 대해 잘못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을 수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다루면서 선조의 실책은 묵인하고 전란에 시달린 애처로운 군왕이었음을 내세웠다. 조정 대신들의 결

46) 초이일의 기성의 쥬가하니 양시 니산히 육호무로 파직을 청하니 조츠시고 최홍원으로 영상을 삼고 윤두슈와 뉴홍으로 좌우상을 삼으시다

47) 육월의 거기 평양을 썬나시다 님진피보 니르니 정철이 문져 출피홀 의논을 너거늘 윤두쉬 고집히 직힐나호야 의논이 합지 아닌지라 성중 사름이 출피홀 의논을 듯고 각각 훗허진지라 상이 친히 직힐 쓰으로 효유하시니 부뢰 업드려 통곡허더라

48) 임의 성을 나갈 바를 정지 못허지라 조신이 다 말호되 북도로 가미 편망타 하니 니항 북이 역경 왓당당이 의쥬를 나와 천병을 영접호고 불헿흔즉 안호로부터 조용히 회복호를 도모호자 하니 뉴성농 뉴두슈 의논이 쏘흔 이갓흔지라 상이 영변으로 향호시고

정으로 피란할 수밖에 없었던 선조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원병을 이끌고 온 명의 장수에게 의지하는데 그들을 전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매우 유약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또한 선조를 약자로 표현하여 독자의 심정적 지지를 이끌고 전쟁의 책임에서 분리시켜 결국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거가가 1592년 4월 30일에 한양에서 출발하여 개성을 거쳐 평양에 이르고 6월 22일에 의주에 도착하는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과는 달리 이후 선조의 이야기는 이따금 나타날 뿐이다. 1593년 10월 4일에 환도한 사실이나 선릉과 정릉에 변고가 있어 통곡한 일, 묘사주를 맞이하여 분향례를 행한 일 정도가 기술되고 이여송이나 양호, 진린 등 명 장수와 의 관계 정도가 언급된다. 임금으로서 전란에 신음하는 백성을 구할 방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 중 판단 착오로 실책을 하는 모습도 없다. 선조가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을 명하는 부분은 아예 빠지고 대간이 나국을 청해서 이순신을 잡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소동화역디설>에서 선조는 그릇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전란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하고 전쟁 상황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임금이 아니었다. 난리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몽진을 가야 했고 그 여정은 너무도 힘들어 임금으로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다. 도성을 버린 결정도 자의가 아니었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였으며 전시 이전이나 이후에도 대신을 올바르게 배치하여 해결을 꾀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이 작품의 작자는 선조를 긍정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피란 과정만을 상세화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소략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실정에 대한 서술을 제외하였다.

4. 역사서사의 문예적 효용과 의미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미래에 닥칠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공한다. 특수한 효용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흥미를 충족하기 위한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쇼동화역디설>은 소설은 아니지만 20세기 초에 한 여성 독자에 의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필사되었을 정도로 흥미소를 갖춘 읽을거리였다. 실재했던 역사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실만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저명인물과 그들의 행적을 기술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였다. 그러는 동시에 작자의 저술의도에 따라 문학적 요소까지 일부 갖추어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굳이 서술되지 않거나 특정 인물의 일화가 확대되는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도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독자의 주목을 끌 만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이를 확장하여 강조하는 등 문예미를 추구한 것이 독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쇼동화역디설>이 역사서사로서 다루고 있는 임진왜란 이야기는 수용층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이품을 접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실재한 사건이므로 독자에게 특정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소재 및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야담 등도 함께 향유되었을 것이나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월적 세계관이 엿보이거나 신이한 능력을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사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허구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독자는 이것이 역사서사이고 실재한 사건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를 접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부분을 읽으면서 훨씬 실제적인 흥미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건에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향유한다는 일종의 자부심을 가

지고 교양서적으로서 이 작품을 대할 수 있다. 물론 <임진록>과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도 왜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조선 명장의 눈부신 활약을 통쾌하게 받아들여 감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소동화역디설>의 임진왜란 이야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재한 이야기를 읽어 당시의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지적인 흥미도 함께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허구가 아니라 역사를 읽는다는 즐거움에 문학성이 가미된 일화를 통해 소설을 읽을 때의 감동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총체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어 매우 단편적인 언급도 짚고 문학적 면모를 띠는 일화에 있어서도 지나친 극화를 자제하여 소설의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수용층은 소설만큼의 재미를 충족하면서도 역사를 알게 된다는 욕구도 함께 달성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야기는 작자의 세계관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부분이기도 하다. 전쟁 부분을 기술하면서 역사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과 인물을 선택하고 분량 면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었다. 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특별하게 형상화하고 몇몇 인물의 일대기는 확대 서술하였다. 이러한 문예적 요소를 통해 작자 나름의 역사의식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왜 발발한 것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조선이 망국의 위기에 봉착했는지, 전쟁을 극복하는 데 일조한 존재가 누구인지 등이 서사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 중 작자가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독자가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작자가 조선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 인물의 경우 잘못을 들추고 비방하여 악역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전범화(典範化)를 시도하면서 작자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특성이 창출되었다.⁴⁹⁾ 조선왕조에 충과 의를 다하거나 나라를 지킨 인물에 대해 더욱 그러한 면모를 강조하고, 명과 조선의 평화를 깨뜨린 풍신수길을 비롯

한 왜나 당쟁으로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무능력한 대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지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임금만은 불시에 전란을 만나 생전 겪지 못한 시련을 감내하는 가련한 존재로 형상화하여 그의 실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겉으로는 역사서를 표방하고 임진왜란의 객관적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자의 역사의식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문예적 요소를 적재적소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쇼동화역디설>은 역사서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백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 전란으로 온 국토가 폐쇄해진 임진왜란 부분을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선조의 실정을 감추고 명 조정의 원조를 대단한 것으로 미화하는 것이다. 전쟁 때문에 각지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고통은 거의 서술하지 않고 많은 백성이 굶주려 아사하는 지경에 이르자 명의 황제가 군량미를 조달하고 명의 장수가 사사로이 조선의 백성을 구제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재조지은’⁵⁰⁾ 역설한다. 민간의 참상을 잠깐이라도 언급한 것은 오직 명을 우호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함이었다.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도 조선의 임금을 변호하고 명의 은혜를 강조한 것은 이 작품의 작자가 민중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역사서사로서 궁중과 조정의 일을 주요 소재로 하기 때문에 전쟁 부분을 서술하면서도 그러한 시선을 견지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임금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역사를 기술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조선시대 지배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작가 의식만 보자면 고전소설 중 중세 질서의 회복을 꾀하는 이상소설적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쇼동화역디설>은 임진왜란을 기술하면서 전란의 기이한 조짐을 먼저

49) 권혁래, 앞의 책, 179쪽.

50)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68~69쪽.

보여 이야기의 흥미를 돋우고 이전에 서술한 사건과 서사적 분리를 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조에 의해 전쟁을 충분히 예측했으면서도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한 조정의 대인을 비판하였다. 전쟁 중에 패배하거나 인상 깊은 활약을 남긴 인물담을 다수 배치하였는데 연도별로 사건을 기술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물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충과 의를 지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몇몇 장수를 부각한 것이다. 임금의 실정에 대해서는 사실을 최대한 감추고 동정을 유발하는 등 교묘한 구성을 통해 긍정적인 면모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이처럼 <쇼동화역디설>의 작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였으면서도 때로는 자신이 가진 역사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문예적 장치를 동원하여 특별하게 선택한 사건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역사 서사의 지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수용층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부분을 따로 떼어 놓아도 단독의 실기문학으로 충분히 향유될 만한 서사를 창출해낸 것이다. 이는 곧 <쇼동화역디설>이 결코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자잘하고 단편적인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 흥미성을 갖춘 풍부한 읽을거리를 내재하여 역사서사이면서도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맺음말

<쇼동화역디설>은 6권 4책의 국문 필사본으로 임금의 행적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역사를 기술하되 명신과 저명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다룬 역사서사이다. 이 작품의 권지삼에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전체 분량에 비추어 보아도 임진왜란 이야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1589년에 임진왜란을 처음 언급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조선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1599년에 명의 원조 규모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쟁에 대한 서술을 마친다. 역사서사이기 때문에 전쟁을 기술하면서도 사실을 전달하는 데 충실한 특성을 지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문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작자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임진왜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상황을 나열하여 마치 단독적인 이야기의 도입부처럼 구성하였다. 하늘에서 불길한 징조를 보여 경고하거나 천문을 읽은 비범한 인물이 예언하는 내용을 넣었다. 그리고 당쟁 때문에 조정에서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던 사정을 소개하기도 하고 풍신수길의 야욕도 함께 다루었다. 이렇게 임진왜란 전의 상황을 선택하여 서술함으로써 전란을 앞둔 조선의 위태로운 분위기를 고조하고 임진왜란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둘째, 임진왜란의 경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되 조헌과 이순신의 일화를 구체화하여 중심인물로 부각하였다. 전쟁에서 활약한 인물에 대한 내용을 역사로 기록하기는 하지만 분량의 경중은 다를 수밖에 없다. 조헌이 전란을 예견하여 왜를 배척하고 전쟁 준비를 촉구하는 상소를 지속적으로 올렸던 사실과 의병을 일으켜 장렬하게 전사한 일을 강조하여 충과 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형상화했다. 이순신은 책략과 병법에 능한 장수로 미리 거북선을 건조하여 침략에 대비하였고 백의종군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전연승하는 모습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그려냈다.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두 인물의 일화를 구체화하여 소개함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학적 감동까지도 촉발할 수 있었다.

셋째,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역사서사를 표방하면서도 선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려 노력하였다. 몽진을 결정한 책임을 대신들에게 돌리고 그 과정에서 선조가 겪은 시련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러면서 영의정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민심을 회유하는 내용 등만 소개하여 마치 선조가

전란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원군을 이끌고 온 명의 장수에게 눈물을 보이는 모습으로 선조를 약자로 표현하여 독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선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가 겪은 시련을 강조하고 무능력한 대처는 다른 인물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실정에 대한 서술은 제외하였다.

<쇼동화역디설>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다루면서도 사실을 단순하게 배치하지 않고 사건의 전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독자를 배려하였다. 또한 객관적 사실의 기록에 작자의식을 반영하여 문학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진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기도 하며 특수한 인물의 일대기를 확장하여 서술하기도 하는 등의 특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예적 서술 방식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허구가 아닌 실제한 역사를 향유한다는 즐거움까지 부여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자료]

- 류성룡, 『징비록』, 신태영 외 4인 역, 논형, 2017, 1~407쪽.
<쇼동화역디설> 권지삼(충남대학교 소장본; 고서 경산 集. 小說類 3047).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논저]

- 강현모,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전승의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2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93~115쪽.
-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1~263쪽.
- _____, 「16·17세기 동아시아적 경험과 기억으로서의 일본인 형상-조선후기 역사소설을 대상으로」,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31~61쪽.
- 설성경·최문정·권혁래, 「임진왜란 관련 한일 역사서사문학의 성격-〈임진록〉과 <태합기>, <조선정벌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2, 143~184쪽.
- 유병환, 「<임진록>에 나타난 사명당의 신통법력과 그 의미」, 『한어문교육』 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0, 244~281쪽.
- 윤보윤, 「<쇼동화역디설>에 나타난 역사와 문학의 접점 연구」,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253~292쪽.
- _____, 「전기서사와 역사서사의 비교 연구-〈박태보실기〉와 <쇼동화역디설〉의 ‘박태보일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81, 어문연구학회, 2014, 71~95쪽.
- _____, 「<쇼동화역디설〉의 송시열 형상화 방식 연구」, 『인문학연구』 11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215~252쪽.
-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1~472쪽.
- 임철호, 「<임진록>의 전승과 구비설화」,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211~244쪽.
- 장경남, 「임란 실기문학 <임진록> 연구」, 『송실어문』 10, 송실어문학회, 1993, 269~289쪽.

- _____, 「특집: 근대 초 고소설의 전변과 담론화 양상; 근대 초기 <임진록>의 전변 양상」,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41~75쪽.
- 조동일, 『(제4판)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9, 1~626쪽.
- 최문정, 「한일 역사군담소설에 나타난 승자·통치자像-〈태평기〉와 〈임진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17,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1, 281~303쪽.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1~449쪽.

ABSTRACT

The Description Method of War and its Literary Meaning in
Sojungwhayeokdaeseol focusing on Imjinyaoran

Yoon, Bo-yoon

Sojungwhayeokdaeseol is a historical narrative focusing on the achievements of the king in the Joseon Dynasty while covering the description of capable statesmen and famous figures. It deals with a story about Imjinyaoran,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in 1592, which covers a considerable part in this work. We can find the author's consciousness added by literary elements in many areas in spite of a characteristic of delivering the facts of the war faithfully.

First, it begins with the introduction of an independent story in which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outbreak of the Japanese invasion are listed. It contained the ominous sign from heaven or extraordinary figure's prediction warning the coming war. He also introduced the circumstances of being unable to prepare for the war in the Royal court due to the strife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the ambition of Pungsinsugil.

Second, the anecdotes of JoHeon and Yi Sun-sin were embodied and highlighted as central figures while listing the progress of the Japanese Invasion over time. It was emphasized the fact that Jo Heon continuously filed an appeal to urge preparation of war and that he was killed heroically by raising up forces in the cause of justice. Yi Sun-sin was depicted as a figure respected by the people by constructing turtle ships in advance to prepare for the Japanese invasion and by winning a series of battles.

Third, he tried to portray the King Seonjo positively while advocating the historical narrative with the list of objective facts. To this end, he emphasized the king's ordeal, shifted his responsibility to other people,

and excluded descriptions of his failed administrative situation.

The author of *Sojungwhayeokdaeseol* reconstructed the whole story for the reader to easily understand instead of simply arranging the fact when dealing with the Japanese invasion. In addition, the author included literary elements by reflecting his consciousness on the description of the fact. In the meantime, there revealed characteristics such as the fact that the story became different from the truth in trivial parts or the biography of a distinguished person was described with extension. This literary style brought about popularity for this historical narrative not only by stimulating readers' interest but also satisfying the pleasure of enjoying real history, not fiction.

Key Words *Sojungwhayeokdaeseol*, a historical narrative, the Joseon Dynasty, Imjinyaoran, Jo Heon, Yi Sun-sin, the King Seonjo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